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한 나 리·박 주 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패턴·모델리즘디자인전공 석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자연물로서 달의 조형적 가치를 알고, 이를 패션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달에 대한 인식과 관념의 상징적 의미를 문명, 신화 그리고 풍습의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물리적 측면에서 달의 기원과 구조, 위치와 상태, 일식과 월식의 현상을 탐구하여 '승배사상에 의한 상징성', '회전운동에 의한 원형성', '위치상태에 의한 가변성', '상호관계에 의한 중첩성'이라는 4가지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도출해냈다. 연구의 결과로서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패션디자인에 활용하여 여성복 8벌을 제작하였다. 하나의 형과 절제된 색을 갖춘 달의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루엣과, 소재, 색상을 제한하고 통일감을 주어 범공간적 우주속의 절대적이고 권위적인 달의 존재성을 표현하였다. 구조적 의복구성에 4가지 조형성을 모두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상징성은 도안화하여 입체적 재단으로 표현하였고, 원형성은 슬림 핏 실루엣을 유지하며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크기로 적용하였다. 중첩성은 칼라나 여밈 부분에서 다양한 구조와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가변성은 중첩성과 개연성을 가지며, 착장 연출에 따른 변화 요소로 표현하였다. 또한 의상의 뒷면에는 달의 뒷면을 대입하여 미지 영역의 해석과 탐구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을 통해 우주와 자연의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나아가 새로운 디자인 개발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달, 상징성, 원형성, 가변성, 중첩성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천체에 대하여 경외감 이상으로 깊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왔다. 천체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주기로 지구를 공전하는 달은 인류 초기부터 흥미롭고 신비로운 것으로 인식되면서 숭배의 대상이었다. 일찍이 달은 자연과 인류의 삶에 반영되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달의 변화하는 모습과 달 표면의 검은 반점은 고대 여러 문명에서 신화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고대인들은 일식과 월식을 신의 메시지로 여기며 식현상을 관측하였고, 달의 위치와 상태에 따른 변화를 기록하여 시간과 날짜를 구분하였다. 고대의 달의 움직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천문학을 체계화 시켰으며, 오늘날 모든 달력의 기준이 되었다.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며, 인류가 우주의 신비를 직접 경험한 첫 번째 천체이다. 우주 공간의 달은 태양과 지구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초승달·상현달·보름달·하현달·그믐달로 변화되며 관측된다. 이러한 달의 위치와 상태에 의한 변화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달이 지구와 가깝고, 다른 위성에 비해 월등히 커서 그 힘이 지구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달의 위상 변화와 여성 월경 주기의 일치, 달의 인력으로 인한 조수 관계와 지구 자전축의 유지¹⁾ 그리고 인체의 수면 행동과 출산율, 범죄율 증가 등의 다양한 통계와 연구는 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달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천문학적 원리에 의한 위치와 상태의 변화가 특징인 자연물이다. 이러한 달이 지닌 조형 특성은 패션 분야에 반영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

구는 달의 사상적 관념과 물리적 현상에 의한 위상변화를 고찰하고 조형 특성을 도출하여,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달의 위상변화의 조형성이 의복 구성의 과정에 적용되어 새로운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이 지닌 미적 가치가 패션을 비롯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달의 의미와 현상에 대하여 시대적, 관념적, 물리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탐구하여 달의 조형 요소를 분석하고, 디자인 분야에 반영된 다양한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은 문명과 지역을 구분하고, 시기에 따라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달의 기원으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성이 입증된 대표적 학설, '거대충돌설(Giant Impact Hypothesis)'²⁾을 토대로 한다. 또한 관측되는 지역에 따라 달 위상변화의 모습이 달라지므로, 지구의 북반구에서 관찰한 모습을 기준으로 한다.³⁾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한다. 문헌 연구로는 달 위상변화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달과 관련된 전문 서적과 선행 논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자료들을 고찰하고, 천문학적 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National Geographic' 영상 자료와 태양계 3D 시뮬레이션 'Solar System Scope', 천체 관측 가상 천문대 'Stellarium v0.12.4'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분석은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생활 디자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IF Design Award', 'Reddot Design Award', 'IDEA Award' 그리고 'Good Design Award'



<그림 1> 구석기시대 블랑샤르 뼈에 새겨진 달의 주기
(출처: Edwin C. Krupp, 『고대 하늘의 메아리』)



<그림 2> 손잡이 달린 안경, 1600년 경
(출처: 『안경의 문화사』, 2003, p.49)



<그림 3> 고대 달의 상징 기호
(출처: Edwin C. Krupp, 『고대 하늘의 메아리』, Adrian Frutiger, 『인간과 기호』)

의 글로벌 어워드에 소개된 제품과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달의 특성이 반영된 제품을 수집하고, 각각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에 대한 숭배와 신앙을 배경으로 풍습과 관념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와 이미지 표현 양식을 알아본다. 둘째, 달의 기원과 생성을 살펴보고, 구조와 형태의 외적 요소와 위상변화의 물리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셋째, 앞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달 위상변화의 조형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다. 넷째, 이러한 과정들로 분석된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적용하여 새로운 해석의 패션디자인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달에 대한 관념

1) 문명에서의 달

약 3만 년 전 구석기시대의 크로마뇽인들이 뼈에 새겨놓은 달의 위상변화의 흔적이 처음 발견된 이후, 달은 모든 문명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⁴⁾ 오리냐크(Aurignac) 문명의 우크라이나 ‘곤치(Gontzi) 뼈’와 아프리카 ‘이상고(Ishango) 뼈’에 달의 형태가 표시되었으며, 프랑스에서 발견된 ‘블랑샤르(Blanchard) 뼈’ 조각에도 모두 다르게 새겨진 달

형태의 나열이 다섯 번의 회전 방향을 바뀌어가며 배열되어 있다<그림 1>. 이것은 달의 움직임 관찰하고 날짜를 계산하여 기록한 것으로 두 달간의 달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달의 표기는 신석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천문학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달력의 체계와 도식적 형태로 묘사되었으며,⁵⁾ 초기 여러 문명들은 시간과 날짜로 달의 주기적 현상을 측정할 태음력을 사용하였다. 켈트(Celts) 문명의 영국 ‘스톤헨지(Stonehenge)’와 아일랜드 ‘노스(Knowth)’ 거석 유적지에도 달에 대한 상징적 형태들이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달의 위상과 주기가 순차적으로 새겨져 있다<그림 2>.⁶⁾

청동기시대에는 달 주기 변화의 도식 형태 이외에도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달에 관련되어 나타났다. 그 중 황소는 뿔의 형태가 초승달과 흡사하여 달과 함께 숭배를 받았으며, 악마·두려움· 공포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⁷⁾ 뱀은 거울에 동면하였다가 봄에 다시 나타나는 현상,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현상이 달의 위상변화와 유사성이 있어 달을 상징하였으며, 치유·변형·환생·불사의 의미를 내포하였다<그림 3>.

2) 신화에서의 달

전 세계 신화 속에서도 황소와 뱀은 달을 상징하며 여러 형태로 등장한다. 이집트의 신성한 소 ‘



<그림 4> 토트, 이집트 신화
(출처: Patrick Boylan, 『Thoth』)



<그림 5> 난나, 수메르 신화
(출처: Christopher Dell, 『세계의 신화』)



<그림 6> 진파리1호분, 고구려 벽화
(출처: 이어령, 『토끼』)

<표 1> 서양과 동양의 달의 상징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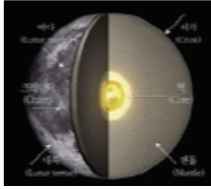
상징의 근원	서양		동양	
	달의 형태		달의 표면	
상징적 동물	황소	뱀	토끼	두꺼비
달의 형태	초승달·그믐달	그믐달·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동물의 습성	뿔, 지하	동면, 허물, 독	중복임신, 다산	동면, 다산
상징적 의미	어둠·암흑·죽음		여성·무병장수·불노장생	
공통적 의미	소멸·재생 / 환생·순환 / 부활·불사			

아피(Api)'는 달에서 생겨났으며⁸⁾, 지하 세계의 뱀 '아페프(Apep)'는 달처럼 소멸되고 생성되는 존재로 여겨졌다. 파오기 두상의 달의 신 '토트(Thoth)'의 부리는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고<그림 4>, 수메르 신화에는 달의 신 '난나(Nanna)'가 초승달을 들고 황소를 탄 모습으로 전해지며<그림 5>⁹⁾, 슬라브에서는 태양과 결혼한 '메사즈(Mesyas)'가 달의 신으로 나온다. 그리스 신화에는 양치기 소년과 사랑에 빠진 달의 신 '셀레네(Selene)'¹⁰⁾가 있으며, 로마 신화에는 탄생과 죽음, 순결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Artemis)'가 달의 여신으로 등장한다. 여러 신화 속에 나타나는 달의 여신은 초승달 형상의 뿔을 가진 황소와 주기적으로 허물을 탈피하는 뱀과 함께 등장하며 달을 상징한다.

한·중·일 문명권에서는 달 표면의 검은 반점에서 비롯된 형상을 토끼와 두꺼비의 모습으로 보아 달의 상징물로 표현하였다. 특히 뱀과 유사한 습성의 두꺼비는 땅위를 뛰고 물속을 자맥질하며,

동면하고 깨어나는 동물로 죽음과 삶을 되풀이하는 달과 상징적 개연성이 깊다. 중국에는 불사약을 먹고 도망친 달의 여신 '항아(姮娥)'가 있고, 일본에는 천황의 구혼도 거절하고 달로 돌아간 공주 '카구야히메(輝夜姬)' 신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해와 달의 정이 표현된 「연오랑과 세오녀」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가 있다.¹¹⁾ 고구려의 '개마총(鎧馬塚)'과 '진파리(眞坡里)1호분' 등의 여러 고분 벽화에서도<그림 6> 토끼와 두꺼비는 달을 상징하고 있다.¹²⁾ 다수의 알을 낳는 두꺼비와 중복 임신이 가능한 토끼는 여성의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무병장수와 불로장생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신화에서 황소, 뱀, 토끼, 두꺼비 등은 달과 함께 신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소멸과 재생, 환생과 순환, 부활과 불사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내포하며 달을 상징해왔다. 서양 신화의 상징동물은 동양 설화의 상징동물과 상징의 근원과 의미, 형태 등에서 차이와 공통점을 가진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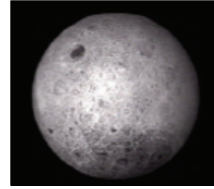
<그림 7> 달의 내부 구조
(출처: Solar System Scope)



<그림 8> 달 표면의 크레이터
(출처: Solar System Scope)



<그림 9> 달의 앞면
(출처: Solar System Scope)



<그림 10> 달의 뒷면
(출처: Solar System Scope)

3) 풍습에서의 달

달은 초승달·상현달·보름달·하현달·그믐달의 형태를 거치며, 한 달 동안 매일 변화하고 주기를 반복하지만, 달에 관한 속설과 풍습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태양력을 사용하는 서양에서는 악마가 밤을 지배한다는 통념이 있으며, 유령, 늑대인간, 뱀파이어 등 공포의 상징들이 모두 보름달이 뜨는 밤에 나타나 기운을 받는 등 보름달은 어둠·죽음·공포가 담긴 부정의 대상이다. 반면 태음력을 사용하는 동양에서는 보름달을 신앙과 농경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 달을 기준으로 세시풍속을 지낸다. 즉 보름달이 뜨는 음력 1월 15일과 8월 15일을 농사의 시작과 끝으로 정해, 달에게 바치는 농경의 예측과 수확을 갈무리하는 여러 가지 전통 의례와 놀이를 지낸다. 중국에는 보름달 아래 춤추고 노래하는 성대한 명절, ‘원소절(元宵節)’과 ‘중추절(中秋節)’이 있고¹³⁾, 일본에도 ‘오쇼가즈(お正月)’와 ‘오봉(お盆)’이라는 축제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정월 대보름’과 ‘추석’을 대명절로 삼아 달을 향해 제(祭)를 올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를 행한다.¹⁴⁾

2. 달의 현상

1) 기원과 구조

‘거대충돌설’에 따르면 달은 약 45억 년 전 행성들이 탄생하던 초기 태양계의 대혼란으로 수많은 준행성체가 수시로 충돌을 일으키는 시기에 화

성 크기의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면서 생성되었다. 충돌로 인해 지구로부터 분출된 막대한 양의 기체, 티끌, 암석 성분의 물질들이 서로 뭉쳐져 고밀도의 응집 핵을 형성하였고¹⁵⁾, 상호 중력에 의해 지구 주위를 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달의 기원설이다.¹⁶⁾

달은 구의 형태로, 평균 70km 두께의 지각(Crust), 1,250km 깊이의 맨틀(Mantle), 그리고 330km 반지름의 매우 작은 핵(Core)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7>.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며 많은 양의 태양 빛을 반사한다. 밝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은색과 회색의 어두운 위성이다. 달은 표면의 검은 반점으로 보이는 현무암 물질의 ‘바다(Lunar maria)’ 지역과 밝은 사장암 물질의 ‘대륙(Lunar terrae)’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의 지형은 둥글게 함몰된 채 가장자리가 솟아오른 ‘크레이터(Crater)’가 특징으로 오래전 화산의 폭발과 운석들의 집중 포화를 맞아 패인 형상이다<그림 8>.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앞면은 전체 지형 중 바다 지역이 31.2%를 차지하지만<그림 9>, 뒷면은 2.6%에 불과하다<그림 10>. 또한 뒷면에는 앞면보다 훨씬 더 많은 크레이터가 있다.¹⁷⁾ 달은 수십억 년 전에 생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기가 희박하여 풍화나 침식 작용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달 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며, 부피는 50분의 1, 질량은 80분의 1 정도이다.



<그림 11> 달의 위상변화

2) 위치와 상태

달은 초승달에서 상현달을 지나 보름달로 점점 동글어져 가며, 보름달은 다시 하현달을 거쳐 그믐달로 이울어간다(그림 11>). 달이 오른쪽으로 동글며 가느다란 초승달은 ‘초월(初月)’이라 하며, 달이 커지는 시작을 뜻한다. 반대로 왼쪽으로 동글고 가느다란 그믐달은 ‘회월’이라 하여 달이 줄어드는 마지막을 뜻한다.¹⁸⁾ 초승달에서 달의 모양이 커져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 ‘상현달(上弦月)’이고, 보름달에서 달의 모양이 점점 작아져 왼쪽이 둥근 반달이 ‘하현달(下弦月)’이다. 보통 음력을 기준으로 한 달을 상순·중순·하순으로 나누어 상순에 뜨는 반달을 상현달, 하순에 뜨는 반달을 하현달이라 한다.

달의 위상변화로 ‘삭(朔)’과 ‘망(望)’이 한 달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삭은 ‘삭월(朔月)’이라고 하며, 태양-달-지구 순으로 위치했을 때, 밤이 되는 지구의 위치에서 달이 지구 반대편으로 숨어 약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달을 말한다. 삭월은 위상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신월(新月)’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반대로 망일 때의 ‘망월(望月)’에는 태양-지구-달 순으로 위치하며, 달이 태양 반대 방향으로 놓여 밤 시간이 되는 지구 위치에서 어디서든 보름달을 볼 수 있다.¹⁹⁾ 망월은 중순에 뜨는 모양이 짝 찬 둥근 원형의 보름달로 인해 ‘만월(滿月)’ 또는 ‘명월(明月)’이라고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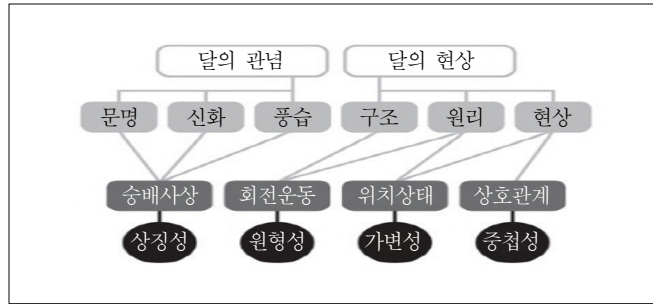
지구와 달은 공전과 동시에 자전을 하는데, 매우 특이하게도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주기는 27.3일로 동일하다.²⁰⁾ 이것은 달이 지구 둘레를 한번 공전하는 동안에 단 한번 자전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러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의 일치는 지구에서 항상 달의 동일한 면, 즉 앞면만을 보게 되는 현상을 만든다. 따라서 지구에서 보는 달은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로 보이며,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다.²¹⁾

3) 일식과 월식

‘식(蝕, Eclipse)’은 한 천체의 그림자가 다른 천체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놓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태양과 달이 값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과 지구의 관계 속에서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일식(日蝕)’과 ‘월식(月蝕)’의 현상을 만들어 낸다.²²⁾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하여 태양을 가리면서 낮이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과 부분적으로 가리는 부분일식이 있다. 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를 지날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전부 가려지면 개기월식, 일부가 가려지면 부분월식이라 한다.

달의 공전은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 궤도로 인해 달과 지구 사이에 근지점과 원지점의 거리 차이를 만드는데, 근지점의 개기일식에서는 ‘코로나(Corona)’ 현상이 나타나고, 원지점의 개기일식에서는 ‘골드 링(Gold Ring)’ 현상이 일어난다.²³⁾ 월식은 지구가 태양 빛을 차단하여 보름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대기에 의해 굴절된 빛으로 희미하고 은은한 붉은 빛을 반사한다.²⁴⁾ 식의 전반적인 과정은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며, 개기일식이나 금환일식은 몇 분 정도로 짧게 지속된다.



<그림 12> 달 위상변화의 조형특성 도출 과정

월식은 달보다 큰 지구의 그림자 크기 때문에 일식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고찰한 달의 인식과 관념의 상징적 의미와 달의 운동과 현상의 물리적 이론을 통하여 패션디자인 개발에 적용될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문명, 신화, 풍습 고찰을 통한 달 표현 기호와 동물에서 도출된 ‘숭배사상에 의한 상징성’, 달의 구조와 원리 고찰을 통한 달 본연의 형태와 구조에서 도출된 ‘회전운동에 의한 원형성’, 달의 원리와 현상 고찰을 통한 달 변화의 연속과 이동에서 도출된 ‘위치상태의 가변성’, 달의 현상 고찰을 통한 달과 그림자의 교차와 일치에서 도출된 ‘상호관계의 중첩성’이라는 4가지 조형성이 파악되었다<그림 12>.

III.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

1. 숭배사상에 의한 상징성

























고대 문명에 나타난 달의 상징은 서로 다른 지역과 다른 시간대임에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며 그 유사성과 연계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잠재된 의식이 자연물의 형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초적 숭배의 상징물로서 달은 단순화된 형태의 도식적 표식으로 나

타하는데, 크게 기하학적 기호 형태와 도안적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다.

초승달 모양의 아치형 곡선은 창조와 탄생을 뜻하고, 반원형은 신의 세계를 나타내며, 타원형은 우주의 무한한 잠재력과 여성의 잉태로 상징된다. 원형은 보름달의 완전함과 영원함을 의미하고, 시선이 회전하는 원형 운동은 시간의 흐름과 무한 순환을 의미한다. 이중 원형은 여성의 배꼽과 자궁의 표현으로 부활과 재생의 의미를 뜻하며, 회전과 이동의 암시가 내포된 나선형 곡선은 달의 힘과 움직임을 표현한다.²⁵⁾ 이러한 기하학적 기호의 특성은 달의 위상변화에서 보이는 주기적이고 점진적인 현상이 표현된 것이며, 자연과 은밀히 관여되어 달의 동물도 도식적 형태로 함께 파생되었다<표 2>.

달 위상변화는 달의 외적형태와 더불어 달 표면의 검은 반점에 대한 여러 상징적 형태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보름달일 때 뚜렷해지는 달 표면의 현무암 물질과 사암암 물질의 대비 때문에 생기는 검은 반점은 지구상에서 여러 시각으로 관찰되어 여러 형태로 인지된다. 미국과 남미에서 관찰되는 달 표면의 모습은 거의 유사하지만, 이를 미국에서는 사람의 옆얼굴로, 남미에서는 두꺼비로 해석한다. 또 유럽에서 관찰되는 달 표면은 동아시아에서 대략 180° 회전된 모습인데,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달 표면의 검은 반점을 엄지발이 큰

<표 2> 고대 달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기호의 의미와 상징

기호	달의 표현				도식	의미	상징	
아치형 곡선		→		→		→		창조 지하 세계
반원형		→		→		→		천체 신의 세계
타원형		→		→		→		잉태 무한 우주
원형		→		→		→		완전 연속 순환
이중 원형		→		→		→		자궁 부활 재생
나선형 곡선		→		→		→		회전 초월 적함

개로, 동아시아에서는 방아 짙는 토끼로 해석한다. 공전하는 달의 변화와 지구상의 관측 지점에 따라 달 표면의 형상에 대한 해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고대부터 문명과 신화에 등장하는 서양의 대표적인 달의 동물인 황소와 뱀은 본체와 본능의 본질적 특징이 반영된 것인 반면, 동양의 대표적인 달의 동물인 토끼와 두꺼비는 관찰과 해석의 시각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황소와 뱀은 기하학적 기호에서 비롯된 도형적 요소의 구성으로 설명되며, 토끼와 두꺼비는 평면적 명암 대비에서 비롯된 도안적 요소의 구성으로 분석된다. 달 상징동물의 조형적 해석은 <표 3>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회전운동에 의한 원형성

우주 태양계는 지구를 포함한 8개의 행성과 달을 포함한 140여개 이상의 위성, 그리고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구체로 되어 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동시에 자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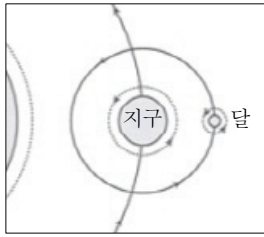
<표 3> 달을 상징하는 동물의 조형적 해석

시각	달의 관찰			
	외형 변화 관찰		표면 반점 관찰	
특징	본체와 본능의 본질적 특징		관찰과 해석의 시각적 특징	
표현	기하학적 기호형태		평면적 명암대비	
구성	도형적 요소		도안적 요소	
동물	황소	뱀	토끼	두꺼비
조형적 해석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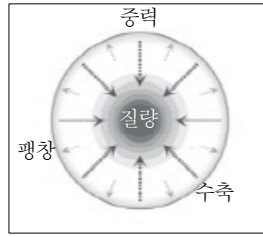
회전운동의 원형적 특성을 나타낸다<그림 13>.²⁶⁾

달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성들이 원형의 구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질량을 가진 모든 자연적 물질들이 내부로 수축하려는 힘과 외부로 팽창하려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표면적을 갖도록 형태를 잡기 때문이다<그림 14>.²⁷⁾ 중력을 갖는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달과 지구도 이러한 물리적 힘에 의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하여 달은 지구 둘레를 원형으로 회전한다.²⁸⁾ 달이 지구 둘레의 궤도에서 일정한 원 운동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그림 15>. 이러한 물리적 힘은 우주의 형태를 형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태양계를 결속시키는 힘이자, 천체의 궤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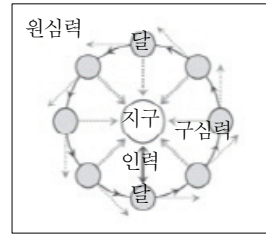
이처럼 우주 보편적인 힘에서부터 비롯된 원형적 요소가 달의 본질적인 생성과 형태 그리고 태양·지구·달 사이의 공전과 자전의 물리적 작용을 만들며, 회전운동에 의한 형태와 구조의 원형



<그림 13> 태양과 지구와 달의 회전운동



<그림 14> 달의 구 형태 원리



<그림 15> 달의 원심력과 구심력

<표 4>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

조형성		특징
상징성	기호	· 숭배사상에 의한 달의 관찰. → 외형적 변화: 기하학적 도형 요소. → 표면적 반점: 평면적 도안 요소.
	동물	
원형성	형태	· 회전운동에 의한 우주 보편적인 힘. → 인력·구체: 본질적 생성 원리. → 공전·자전: 물리적 원 운동 원리.
	구조	
가변성	연속	· 위치상태에 의한 반복적 가변 속성. → 빛·음영: 착시 형상의 연속 변화. → 삭·망: 주기적 점진적 이동 변화.
	이동	
중첩성	교차	· 상호관계에 의한 시공간의 시각적 중첩. → 공전·운동: 좌우 궤도상의 교차. → 일식·월식: 앞뒤 공간상의 일치.
	일치	

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을 도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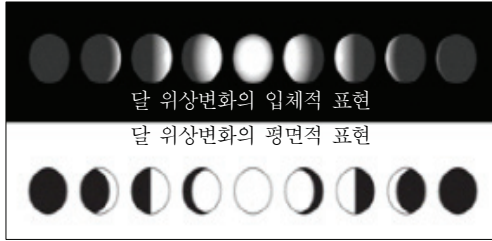
3. 위치상태에 의한 가변성

달은 어둠 속에서 빛과 대조를 이루며 변화적인 속성을 보인다. 달의 형태적 명료성과 명암의 대비성은 태양을 통해 물리적으로 전달된 빛의 시각 기능을 넘어 음영 연출로 주목성을 높이며, 시간에 따른 형태 변화에 있어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가치를 부여한다.²⁹⁾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주기적인 패턴으로 변화하는데, 지구는 달의 음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달의 위상을 관망하는 위치에 있다.³⁰⁾ 태양과 달의 빛과 음영의 관계 속에서 달의 위상변화가 나타나며, 빛을 받는 물체에 명암이 생기는 물리적 현상으로 시각적 관찰에 의한 변형

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6>. 이러한 변형은 달 본연의 원형은 유지하면서, 빛과 움직임에 의한 동적 조형 형태를 이끌어 낸다.

한 달을 중심으로 삭·망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달은 원형적 형태에서 삭제되거나 첨가됨으로써 초승달 → 상현달 → 보름달 → 하현달 → 그믐달의 순서로 점층적 형태를 이루며, 유연한 시각적 변화를 만든다.³¹⁾ 달의 가변적 형태는 태양과 달의 상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지구에서의 관측 지점에 따라 달라지며, 연속과 반복의 점진적 변화로 상상에 의해 추적되고 부분적으로 형태를 확장시켜 시각적으로 달 위상변화의 단계를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달 위상변화의 점층적 형태는 자체의 변형이 아닌 시각적 착시에 의한 것으로, 빛으로 형성된 실체적 속성과 공제된 형태가 시공간적 질서와 균형을 이루며 기다림과 예측의 시각적 완성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현상에서



<그림 16> 달 위상변화의 음영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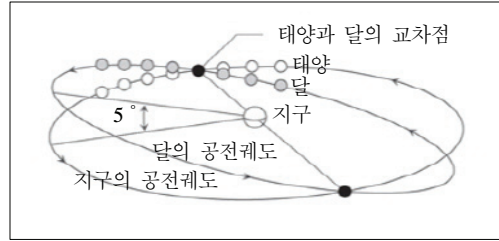
조형적 특성으로서 위치상태에 의한 연속과 이동의 가변성이 도출되었다.

4. 상호관계에 의한 중첩성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은 입체적 구 형태의 태양과 달이 공간적 거리를 두며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나타나는 시각적 중첩으로 지각하게 된다. 달과 태양의 식 현상은 앞뒤로 일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로 이동하는 교차 방식으로, 시공간 관계의 중첩적 요소를 함께 나타낸다<그림 17>.

이러한 식 현상에서의 점층적 형태 변화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달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시각의 인지로 위상변화와 흡사해 보이지만, 그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달의 위상변화는 빛에 의한 음영으로 반원의 형태를 거쳐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반면, 식 현상에서는 원형의 그림자 형태가 채워지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상변화는 빛에 의한 음영의 현상이지만, 식은 천체들의 공간적 중첩 상태에서 태양 빛을 막아 위치함으로써 가려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태양·지구·달의 세 개의 천체가 일렬로 늘어서는 중첩적 현상은 대략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각각의 궤도면에서 각각의 주기대로 회전운동을 하면서 형성하는 일치와 교차는 매순간 시각적 변형을 반복하면서 동시성, 시간성, 지속성을 형성한다.

공전 궤도에 의한 일식과 월식의 현상은 태양



<그림 17>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의 원리

이나 달의 완전성을 감소시키고, 왜곡과 간섭을 통해 긴밀한 변화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시공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교차와 일치의 중첩성이 조형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분석된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은 <표 4>로 정리될 수 있다.

IV.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현대 디자인 사례 분석

의상제작에 앞서 달 위상변화의 조형 특성이 현대 디자인에 반영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최근 4년 동안의 컬렉션 중, 아르마니 프리베(Armani Prive)의 2010S/S Couture 컬렉션, 폴 스미스(Paul Smith)의 2011F/W RTW 컬렉션,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2012S/S RTW 컬렉션, 빅터 앤 로프(Viktor & Rolf)의 2012F/W RTW 컬렉션, 그리고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의 2014F/W RTW 컬렉션이 달을 영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컬렉션들은 달을 주제로 역사적, 신화적 요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상징성의 조형 특성이 분석되며, 실루엣, 재단, 기법에서 완전한 원형이 아닌 곡선형 형태로 관찰되어 원형성으로는 분류되지 못했으며, 가변성과 중첩성 역시 착용 방법과 연출에 따른 변화 요소가 작아 뚜렷이 구분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패션분야에서의 달은 위상변화의 형

<표 5>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사례 분석

제품						
		<그림 18> Moon Cushion (출처: www.i3Lab.com)	<그림 19> The Moon Carpet (출처: www.martin-most boeck.com)	<그림 20> Moon Glass (출처: www.tale-design. com)	<그림 21> Moon Rabbit Cup (출처: www.yiidesign. com)	<그림 22> Moon Watch (출처: www.theemotionla b.com)
조형 성	상징성	●		●	●	
	원형성	●	●	●	●	●
	가변성			●	●	●
	중첩성					
제품						
		<그림 23> Healing Moon Wall Lighting (출처: toys.brandoo.com. hk)	<그림 24> Amuleto LED Lighting (출처: www.atelierramun .com)	<그림 25> The Moon Stand Lighting (출처: www.futerodesign .com)	<그림 26> Yin Yang Moon Table (출처: www.demacker-d esign.de)	<그림 27> Moon Coffee Table (출처: www.behance.net)
조형 성	상징성	●			●	
	원형성	●	●	●	●	●
	가변성	●	●	●		●
	중첩성			●	●	●

태적, 동적 요소보다는 달의 상징적 관념이 투영된 서정적이고 정적인 감성으로 집중되어 있음이 분석되어 달의 조형성이 활용된 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달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달의 형태와 구조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이 수반된 제품디자인 분야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달 위상변화의 조형 특성이 반영된 제품디자인 사례는 현대들의 생활양식에 맞는 리빙 제품으로 한정하여 최종 선정된 10개국 14가지의 제품디자인을 매트, 도자, 시

계, 조명, 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보름달 이미지가 프린트된 『문 오디세이 쿠션 매트(Moon Odyssey Cushion Mat)』는 흡광소재를 사용하여 달의 반사 속성을 재현하였다. 어둠속에서 강하게 빛을 반출하며, 점진적으로 달의 존재감을 활성화시킨다. 새로운 공간각적 체감이 가능한 공간의 오브제로서 상징성과 원형성이 분석된다<그림 18>. 『더 문 카펫(The Moon Carpet)』은 다양한 크기의 원형 펀칭으로 달 표면의 크레이터를 묘사하고 있으며, 제품의 외형과 불규칙적인 형태의 디테

일로 원형적 조형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그림 19>.

『문 글라스(Moon Glass)』는 잔 본연의 형태와 가득 채운 내용물로 원형성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사용자는 잔을 채우고 비우는 과정에서 달의 위상 과정과 동시에 생성과 소멸을 순환시키는 주체가 되며 상징성을 나타낸다<그림 20>. 『문 래빗 컵(Moon Rabbit Cup)』은 동양의 달 신화 속 토끼가 상징적 대상으로 표현되어 원형 형태의 잔과 내용물의 양에 따라 가변적 특성을 보인다. 사용자의 행위가 토끼와 함께 물과 달을 공유하게 되는 감성적 디자인 사례이다<그림 21>.

순목시계 『문 워치(Moon Watch)』는 초·분·시간 단위에서 벗어나 달의 주기에 따라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 가변적 특성을 나타내고, 화면은 달의 원형성을 유지하며, 흑백의 대조는 음영으로 형성되는 달의 위상변화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2>. 『힐링 문 월 라이팅(Healing Moon Wall Lighting)』은 달의 위상변화가 시간의 흐름 또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빛의 양이 12단계로 조절되는 효과적인 기능의 조명으로, 달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달의 외적 형태를 사실적으로 나타낸 제품이다<그림 23>. 『아물레토 엘이디 라이팅(Amuleto LED Lighting)』은 태양, 달, 지구를 상징하는 3개의 원형을 단순한 형태의 조합과 직선 구조로 연결하였으며, 회전 방향의 조절 각으로 우주까지 포괄하는 원형적 특성을 나타낸다. 조절이 쉬운 관절 구조로 동작성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위치, 상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적 특징을 보인다<그림 24>. 『더 문 스탠드 라이팅(The Moon Stand Lighting)』은 원형의 본체와 슬라이딩 커버가 완전히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360°회전하는 커버는 빛을 내는 부분과 교차 또는 일치되는 중첩적 특성을 보인다. 커버의 이동에 따른 빛의 조절은 가변적 특성을 보이는 달의 위상 주기뿐만 아니라 개기일식이나 개기

월식의 진행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림 25>.

상관의 형태에 달의 의미를 접목시킨, 『인 양 문 테이블(Yin Yang Moon Table)』은 음양의 이치를 상징하는 흑과 백, 두 개의 테이블은 겹치거나 독립되는 중첩적 특징으로 연출된다. 상관의 일부는 달 표면처럼 패인 구조로 되어있어 수집된 내용물을 자연적으로 응집시키는데, 이것은 달의 인력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테이블의 조형미와 더불어 실용성을 더하고 있다<그림 26>. 『문 커피 테이블(Moon Coffee Table)』은 입체적 구 형태의 원형적 특성과 더불어 수평으로 확장되는 가변적 특성을 보이는 디자인이다. 절단된 부분들은 불규칙적 형태와 구조적 변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달의 위상변화와 동시에 일식과 월식의 공간적 중첩성을 나타낸다<그림 27>.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사례 중, 달의 주기 변화와 반사 속성을 설명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주목된 아이템은 시계와 조명이며, 도자 역시 사용자의 개입으로 변화의 특성이 잘 반영된 항목이다. 매트는 달 위상의 표현이 다소 제한적인 아이템인 반면, 가구의 분류에서는 달의 해석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원형성이 매우 강한 특징으로 나타났고, 달의 시각적 변화를 디자인에 이용한 가변성이 다음의 특징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징성과 중첩성의 순으로 조형 특성이 도출되었다<표 5>.

이러한 제품디자인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된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은 패션디자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요소이다. 달의 상징적 특성 뿐 아니라, 달의 외적 특성과 주기 변화의 동적 특성 그리고 우주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의복에 적용하여 패션디자인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달의 조형적 특성을 인체와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며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V. 작품 제작

1. 제작의도 및 방법

우주와 인류의 근원이 깃들여 있는 달은 그 내적 의미와 형태적 구성, 표면적 색채와 질감 그리고 역학적 특성을 통해 디자인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여 의상 작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작품은 재킷 형식의 아우터 4벌과 드레스 4벌로 총 8벌의 여성복으로 구성하였다. 실루엣은 여성의 신체곡선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슬림 펜슬 형태를 기본으로 여성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달이 여러 시대와 문명에서 창조 행위의 상징으로 여성에 비유된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달의 변화는 자체의 변형이 아닌 착시에 의한 것이므로, 아우터와 드레스의 실루엣을 규격화하여 달 본래의 단순한 형태와 불변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색상은 태양 빛을 배제하였을 때, 근본적으로 어두운 위성인 달 본래의 색을 토대로 어두운 암회색을 선정하였고, 양면원단에 무색의 투명사로 평평하고 촘촘한 간격으로 박음질한 누빔과 상침질로 단일 소재에 변화를 줌과 동시에 달의 회전과 움직임, 무한함을 표현하였다. 근본적으로 하나의 형과 절제된 색을 갖춘 달의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루엣과, 소재, 색상을 제한하고 통일감을 주어 범공간적 우주 속의 절대적이고 권위적인 달의 존재성을 표현하였다.

의복의 구성은 4가지 조형성을 모두 반영하여 디자인하였다. 상징성은 도안화하여 입체적 재단으로 표현하였고, 원형성은 슬림 핏 실루엣을 유지하며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크기로 적용하였다. 중첩성은 칼라나 여밈 부분에서 다양한 구조와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가변성은 중첩성과 개연성을 가지며, 착장 연출에 따른 변화 요소로 표현하였다.

달의 공전과 자전 주기의 일치로 인해 달의 뒷

면은 지구 어디에서도 관측될 수 없으나, 앞면과 동일하게 위상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위상의 점진적인 변화를 8벌의 작품 뒷면에 순차적으로 배열하였다. 달의 뒷면은 관찰되지 않을 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위상의 뒷면에 대입하여 미지 세계에 대한 해석과 탐구 의지를 직접적 표현으로 강조하였다.

2. 작품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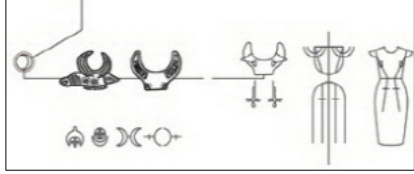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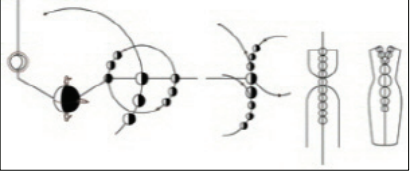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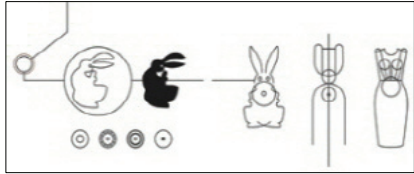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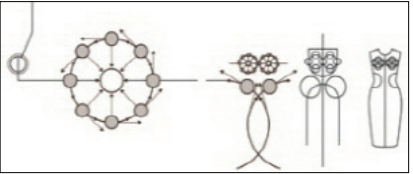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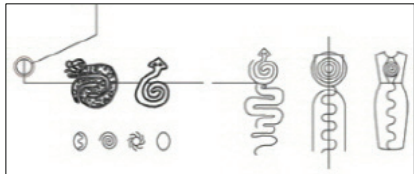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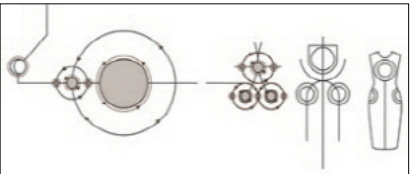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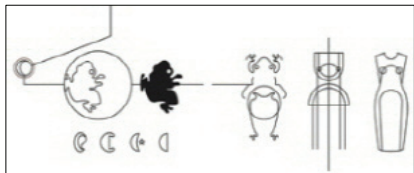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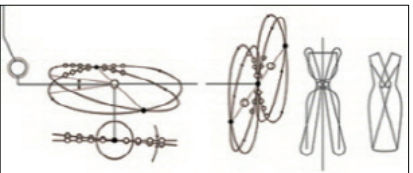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8벌의 의상 작품을 제작하였다<표 6>.

우선 달 위상변화의 시각적 관찰과 기호적 표현에서 추출된 고대 상징동물인 황소와 뱀, 토끼와 두꺼비의 형상을 재해석하여 도안화하여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초승달 형태의 뿔을 가진 황소는 십자가 형태의 지신과 함께 어둠속의 신비한 달의 미술적 힘과 지하 세계로 상징되면서 창조와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작품 2>. 독을 품은 뱀은 생명을 지배하는 암흑의 힘으로 상징되는 동시에 주기적인 허물 탈피로 치유와 변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작품 3>. 달 표면의 검은 반점에서 추출된 토끼와 두꺼비의 형상은 여성의 다산과 번식으로 상징되고, 부활과 불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작품 1> <작품 4>. 하늘과 천체를 의미하는 아치형과 반원형은 환생과 순환의 의미를 내포하며, 여성의 자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형태로 의복에 접목시켜 구성하였다. 의복의 설계는 돌출과 후퇴의 표현으로 입체적 형상을 강조하였으며, 고대 달의 기호에서 여성과 자궁을 의미했던 기호학적 원형의 형태를 접목시켜 순환과 잉태의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구성하였다.

달의 근본 생성 원리와 우주 천체의 상호관계를 활용한 디자인이다. 태양과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식 현상과 공전과 자전의 회전운동

<표 6> 작품 사진 및 설명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특성	상징성	원형성	가변성	중첩성
	승배사상에 의한 달의 관찰	회전운동에 의한 우주 보편적 힘	위치상태에 의한 반복적 속성	상호관계에 의한 시각적 중첩
디자인 전개과정 및 작품사진				
				
				
				
	 <p><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작품 8></p>			

에서 원형성을 표현하였다<작품 7>. 달의 공전 궤도에 따른 근지점, 원지점의 시각적 크기 차이와 위상변화를 활용하여 원형의 모티브를 사용하였으며, 점진적 크기의 배열은 달의 움직임에 대한 연속과 이동의 운동성을 보여준다<작품 5>. 일식과 월식에서 분석된 중첩성의 조형 특성은 여밈 부분이 좌우로 서로 엇갈리고 앞·뒤로 겹쳐지면서, 구조적으로 교차되고 일치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여밈의 형태와 구조는 여성 신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순환과 잉태의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작품 8>. 달의 구조적 형태와 운동성의 표현은 원형적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의미한다<작품 6>. 부분적으로 교차되고 구조적으로 일치되는 중첩성과 착용자의 선택과 연출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가변성을 나타낸다. 개폐구조 방식으로 위상변화 과정을 강조하였다.

VI. 결론

본 연구는 자연물로서 달의 조형적 가치를 알고, 이를 패션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우선 고대부터 내려온 달에 대한 인식과 관념의 상징적 의미를 문명, 신화 그리고 풍습의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물리적 측면에서 달의 기원과 구조, 위치와 상태, 일식과 월식의 현상을 탐구하여 달 위상변화의 4가지 조형성을 도출해냈다. 첫째, 숭배사상에 의한 상징성이다. 달에 대한 숭배와 신앙에서 비롯된 관념은 달의 상징적 의미와 이미지 표현 양식을 나타내며 상징성의 조형 특성으로 분석된다. 둘째, 회전운동에 의한 원형성이다. 달의 본질적 생성 원리와 물리적 운동 원리는 원 운동의 천문학적 작용으로 원형성의 조형 특성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위치상태에 의한 가변성이다. 주기적인 달의 이동은 반복적인 점진 변화와 빛에 의한 달의 음영으로 착시적 변형을 나타내며 가변

성의 조형 특성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상호관계에 의한 중첩성이다. 물리적 상호 작용에 의한 태양·지구·달의 궤도 운동은 시간과 공간의 동시적 교차를 이루며 중첩성의 조형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도출된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패션디자인에 활용하여 의상작품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여성복 8벌은 슬림 펜슬 실루엣으로 여성성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작품을 규격화하여 불변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암회색의 양면소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달의 유일성의 의미를 내포하고자 하였으며, 구조적 의복구성에 4가지 조형성을 모두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기호와 동물의 상징을 단순화시켜 의상의 장식과 디테일 요소에 활용하였고, 구조적 패턴과 절개를 통한 형태구성으로 원형성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중첩성의 조형특성은 교차되고 일치되는 패턴 방식으로 의상에 활용되었고 가변성은 중첩성과 개연성을 가지며 착장에 따른 변화 효과에 주목시켰다. 한편 투명사를 사용한 누빔의 표면기법은 달의 반사성과 운동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의상의 뒷면에는 달의 뒷면을 대입하여 미지 영역의 해석과 탐구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달 위상변화의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이 우주와 자연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 현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창조적 디자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디자인에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미적 접근 방법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광식 (2001). 천문학 콘서트, 서울: 더숲, p.346.
- 2) Rees, M. (2009). 우주, 윤홍식 옮김 (2009). 서울: 사이언스북스, p.149.

- 3) Plait, C. (2009). 우주이야기, 조상호 옮김 (2009). 서울: 가람기획, p.162.
- 4) Fontana, D. (1998). 상징의 비밀, 최승자 옮김 (2002). 서울: 문학동네, p.8.
- 5) Thurstone, H. (2011). 동서양의 고전 천문학, 전관수 옮김 (2010).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p.5.
- 6) Krupp, C. (2000). 고대 하늘의 메아리, 정채현 옮김 (2011). 서울: 이지북, pp.252-452.
- 7) Davis, C. (2008). 세계의 모든 신화, 이충호 옮김 (2008). 광주: 푸른숲, p.47.
- 8) Fontana, D. (2011). 상징의 모든 것, 공민희 옮김 (2011).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175.
- 9) Golan, A. (2004).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정석배 옮김 (2004). 서울: 푸른역사, pp.228-237.
- 10) Dell, C. (2008). 세계의 신화, 정은아 옮김 (2012). 서울: 시그마북스, p.47.
- 11) 박성애 (2008). 한국 일월설화의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12) 김종대 (2001).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p.395.
- 13) 蕭放 (2006). 중국인의 전통생활풍습, 김지연 옮김 (2000).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pp.297-301.
- 14) 노성환 (2010). 한일 신화의 비교연구, 서울: 민속원, p.160.
- 15) Rees, M. 앞의 책, p.149.
- 16) Swimme, B. (2012). 우주 속으로 걷다, 조상호 옮김 (2013). 서울: 내인생의책, p.64.
- 17) Asimov, I. (1994). 알기 쉽고 재미있는 지구와 우주, 백상현 옮김 (1995). 서울: 고려원미디어, p.127.
- 18) 김지현 (2011). 별헤는밤 천문우주 실험실, 서울: 어바웃어북, p.107.
- 19) 최승연 (2013). 천문학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87-88.
- 20) 이수대 (2011). 우주와 인간, 서울: 북스힐, p.234.
- 21) Liu, C. (2011). 누구나 천문학, 김충섭 옮김 (2012). 서울: 지브레인, p.262.
- 22) 김지현. 앞의 책, p.116.
- 23) 김희수 (2009). 천체관측, 서울: 시그마프레스, p.128.
- 24) 박석재 (2003).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는 원리, 서울: 성우, pp.92-93.
- 25) Fontana, D. (2011). 앞의 책, pp.124-126.
- 26) Rees, M. 앞의 책, p.118.
- 27) 위의 책, p.36.
- 28) Zeilik, M. (2010).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강혜성 옮김 (2011). 시그마프레스, p.106.
- 29) 조준호 (1999). Steven Holl 건축의 형상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0-41.
- 30) Liu, C. 앞의 책, p.263.
- 31) Cheatham, R (1994). 디자인의 개념과 응용, 오병권 옮김 (2000).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42.

Fashion Design Based on the Formativeness of Moon Phase Changes

Han, Na Lee · Park, Ju Hee⁺

Master, Dept. of Pattern Modelism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For thousands of years, mankind has been observing and studying astronomical phenomena with a fundamental curiosity of the universe. Consequently, people in most cultures have developed an emotional attachment to the moon. The moon changes her shape constantly in clearly observable ways. As a result, the phenomenon of moon phase changes was incorporated into philosophy, myth and customs of many cultures throughout the ages and was also developed into a body of scientific knowledg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based on observations of moon phase changes, how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moon and its phenomenon can be used as creative materials in fashion design and find a way the characteristics of its formative element, based on both the nature and science, can be incorporated into fashion design in a new form of aesthetic expressions. In this research, conventional notions about the moon are explor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oretical observation. The following formativeness were derived from the study above. The first characteristic is symbolism of religious worship.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circular nature of the moon's rotational movement. Third characteristic is transform-ability produced by its constant changes in position. The fourth characteristic is overlapping caused by interaction. The research attempted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elements derived above into clothes. This research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fashion design that utilizes the formativeness of moon phase changes can be interpreted in modern ways in terms of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universe and the nature. At the same time, it responded to the creative demand of society and suggested a way values can be added to design.

Key words: Moon, symbolism, circular characteristics, variability, overlapping characteristics